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감성지능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유 명 숙<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60년 40.1%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2013년 81.3세로 1970~1974년의 62.7세에 비해 18.6세(29.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인구 천명당 사망률은 2016년 현재 6.3명, 2040년 11.3명, 2060년 17.1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들의 증상완화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2차에 걸친 시범사업 끝에 2015년 7월 15일자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가정방문을 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함으로써(Lee, 2015)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 암 환자들의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58.5%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의사가 있으며, 호스피스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해 71.8%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을 보면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ng, 2015).

호스피스완화 돌봄은 완치가 불가능하여 죽음이 예견되는 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증상들을 돌보아주어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 돌봄으로서(Research institute for hospice/palliative care, 2006), 의사, 간호

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 다학제적 팀 접근으로 이루어지며, 전문가의 개입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Lim & Roh, 2009).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보면, 여성이 94.3%를 차지하고 있으며, 40세 이상이 88.6%를 차지하는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Park, Lee, & Hong, 2012), 그들의 팀 내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Kim, 2015). 특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 줌으로써 시간이 부족한 간호사들의 업무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lanalp, Trost, & Berry, 201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추구하다가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려는 경우가 많고(Kim, Lee, & Kim, 2007),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 및 그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고통 및 죽음이라는 삶의 한 과정에 동참함으로써(Seo, 2011) 인간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는 물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기도 한다(Kim et al., 2007). 따라서 고통 중에 있는 호스피스 대상자들이 삶과 죽음 및 고통이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말기 단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스스로 생의 의미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Choi, Kim, Shin, & Lee, 2005; Seo, 2011).

생의 의미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주요어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죽음에 대한 태도, 감성지능, 생의 의미

1)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sryoo7@cu.ac.kr)

투고일: 2016년 5월 31일 수정일: 2016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6일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Frankl, 1969),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신이 속한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애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Chang & Burbank, 2000). 또한 생의 의미는 삶에 근본적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고통경감의 원동력이 되며(Kang, et al., 2010), 인간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태도로서 인간을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다(Jang, Lee, Yeu, & Choi, 2014). 생의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죽음교육에 참여한 중·노년층 대상자들의 생의 의미 지각정도가 높으면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Kang, et al., 2010), 죽음준비교육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죽음과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Kim et al., 2007; Yoon, 2009),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환자의 가장 의미 있는 대화 주제는 삶의 의미와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Planalp, et al, 201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정체성 확립과 가치실현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Choi, 2014), 이를 위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 발견 및 고통 중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Jang et al., 2014). 그러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환자의 임종과 죽음,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삶과 죽음이 지닌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Yoon, 2009). 동시에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포함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과 임종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Lee, Choi, Park, & Shin, 2013; Yoon, 2009).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의미 등의 요소가 복합된 개념으로서 인간이 죽음에 대하여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양에 비해 동양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며, 특히 현세적 삶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논의조차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Park, Lee, & Hong, 2012; Youn & Ha, 2013). 선행연구에 나타난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의료인에 비해 높고(Lee, et al., 2013)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2).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죽

음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보았으며(Park, et al., 2012), 죽음교육 참여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et al., 2010).

말기환자를 돌보는 데는 인간의 정신, 심리, 신체사회, 영적인 전인격적인 돌봄이 요구되므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다학제적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료행위를 제외한 폭넓은 돌봄을 지원하게 되므로(Kim & Kim, 2015)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성지능(Wong & Law, 2002)이 요구되며, 이는 동료 간의 관계 개선과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Choi, 2010),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들은 말기환자에게 편안한 간호 제공과 정서적인 환경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감성역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Xavier, Nunes, & Basto, 2014).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팀워크 향상과 봉사활동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감성지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생의 의미와의 관련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생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생의 의미와 관련 변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감성지능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생의 의미 발견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삶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호스피스완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감성지능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감성지능 및 생의 의미의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감성지능 및 생의 의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감성지능 및 생의 의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3개 광역시 및 1개 지역도시에 소재한 3개 대학 병원 및 7개 종합병원 이상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2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요인 15개로 하였을 때 최소 199명이 요구되었다.

###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원 도구 개발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

###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의미 등의 요소가 복합된 개념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하여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Thorson & Powell, 1988), Thorson과 Powell(1988)이 개발한 Death Orientation 도구를 Park(1992)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Park(199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4이었다.

### 감성지능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고,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Wong & Law, 2002),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Wong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Choi(2010)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자기감성 이해(4문항), 타인감성 이해(4문항), 감성 조절(4문항), 감성 활용(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201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2이었다.

### 생의 의미

생의 의미는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Frankl, 1969), 또는 자신이 속한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애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며(Chang & Burbank, 2000), 본 연구에서는 Choi 등(2005)이 개발한 생의 의미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6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9문항), 창조적 가치실현(15문항), 경험적 가치실현(10문항),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등(200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5이었다.

###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수행에 앞서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CUIRB-2016-0005)을 받았다. 연구대상 병원의 해당부서 책임자에게 전화통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에 봉사활동 경력이 6개월 이상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 참여의 자발성, 정보의 비밀유지 및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점,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 동의를 철회할 시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총 232부(회수율 97%)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 감성지능 및 생의 의미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죽음에 대한 태도, 감성지능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으며,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3개 광역시 및 1개 지역도시에 소재한 3개 대학병원 및 7개 종합병원 이상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편의 추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감성지능 및 생의 의미 정도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83±0.32점이었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4.98±0.80점으로, 하위 영역별로는 자기감성 이해 5.31±0.82점, 감성 활용 4.89±0.96점, 타인감성 이해 4.88±0.93점, 감성 조절 4.83±1.00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생의 의미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3.08±0.30점으로, 하위 영역별로는 창조적 가치실현 3.17±0.35점, 경험적 가치실현 3.15±0.34점,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 3.02±0.33점,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 2.98±0.41점 순이었다 (Table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198명(85.3%), 연령은 60대가 99명(42.7%), 종교는 가톨릭이 134명(57.8%), 교육수준은 고졸이 102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는 있음이 191명(82.3%), 직업은 없음이 158명(68.1%),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84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봉사활동 동기는 '종교적인 신념' 80명(34.5%) 및 '이웃을 돕기 위해서' 79명(34.1%), 봉사활동 기간은 5년 이상이 119명(51.3%), 주당 봉사활동 횟수는 1회가 186명(80.2%), 주당 봉사활동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이하가 121명(52.2%), 그리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좋음이 161명(69.4%)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 종교, 교육수준, 직업 유무, 주당 봉사활동 시간,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생의 의미 점수는 연령에서 70대에 비해 50대 군이 (F=3.97, p=.009), 종교에서는 기타와 없는 군에 비해 개신교 군이(F=3.52, p=.016),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에 비해 고졸과 대졸 군이(F=5.41, p=.005), 직업은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이 (F=2.91, p=.004), 주당 봉사활동시간은 2시간 이하와 2시간에서 3시간 이하 군에 비해 4시간 이상 군이(F=4.31, p=.015), 그리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그저 그렇다'에 비해 '좋다'는 군이(F=4.02, p<.001) 생의 의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감성지능 및 생의 의미

<Table 1> The degrees of death attitudes, emotional intelligence, meaning in life

(N=232)

Variables	M±SD	Min.	Max.	Possible range
Death Attitudes	2.83±0.32	1.72	3.84	1~4
Emotional Intelligence	4.98±0.80	2.75	6.81	1~7
Self emotion appraisal	5.31±0.82	3.25	7.00	
Other's emotion appraisal	4.88±0.93	2.00	7.00	
Regulation of emotion	4.83±1.00	2.00	7.00	1~7
Use of emotion	4.89±0.96	2.25	7.00	
Meaning in Life	3.08±0.30	2.28	3.84	1~4
Awareness and acceptance of self and life	2.98±0.41	1.75	4.00	
Creative value realization	3.17±0.35	2.33	4.00	
Experimental value realization	3.15±0.34	2.20	4.00	1~4
Contentedness of past and present	3.02±0.33	2.08	3.84	

간의 관계

대상자의 생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태도( $r=.45, p<.001$ ) 및 감성지능( $r=.56, p<.001$ )과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감성지능( $r=.36, p<.001$ )과 낮은 순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대상자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F=3.97, p=.009$ ), 종교( $F=3.52, p=.016$ ), 교육수준( $F=5.41, p=.005$ ), 직업유무( $F=2.91, p=.004$ ), 주당 봉사활동시간( $F=4.31, p=.015$ ), 지각된 건강상태( $F=4.02, p<.001$ ), 그리고 생의 의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죽음에 대한 태도( $r=.45, p<.001$ )와 감성지능( $r=.56, p<.001$ )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명목적도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624~.940으로 0.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64~

<Table 2> The differences of meaning in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F (p)	Sheffé
Gender	Male	34(14.7)	3.01±0.29	-1.51	
	Female	198(85.3)	3.10±0.39	(.134)	
Age (yrs)	49≤ <sup>a</sup>	17( 7.3)	3.00±0.33		
	50~59 <sup>b</sup>	96(41.4)	3.15±0.29	3.97	
	60~69 <sup>c</sup>	99(42.7)	3.06±0.29	(.009)	<i>b&gt;d</i>
	≥70 <sup>d</sup>	20( 8.6)	2.93±0.30		
Religion	Protestant <sup>a</sup>	42(18.1)	3.19±0.32		
	Catholic <sup>b</sup>	134(57.8)	3.07±0.28	3.52	
	Buddhist <sup>c</sup>	38(16.4)	3.06±0.33	(.016)	<i>a&gt;d</i>
	Other and None <sup>d</sup>	18( 7.8)	2.91±0.28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sup>a</sup>	35(15.1)	2.94±0.22		
	High school <sup>b</sup>	102(44.0)	3.08±0.30	5.41	
	College <sup>c</sup>	95(40.9)	3.14±0.31	(.005)	<i>a&lt;b, c</i>
Spouse	Yes	191(82.3)	3.08±0.29	-0.09	
	No	41(17.7)	3.08±0.34	(.927)	
Job	Have	74(31.9)	3.17±0.28	2.91	
	Have not	158(68.1)	3.04±0.31	(.004)	
Monthly income (10,000won)	<100	84(36.2)	3.02±0.28		
	100~<200	62(26.7)	3.08±0.34	2.22	
	200~≤300	55(23.7)	3.11±0.31	(.086)	
	>300	29(12.5)	3.18±0.26		
	missing	2( 0.9)			
Motivation of hospice volunteer activity	Service for neighborhood	79(34.1)	3.14±0.31		
	Religious belief	80(34.5)	3.10±0.28	2.56	
	For new experiences	33(14.2)	2.99±0.26	(.056)	
	Etc	40(17.2)	3.01±0.35		
Duration for volunteer activity (yrs)	<1	19( 8.2)	3.07±0.33		
	1~<3	42(18.1)	3.10±0.36	0.09	
	3~<5	52(22.4)	3.07±0.29	(.976)	
	≥5	119(51.3)	3.08±0.29		
Time for volunteer activity per week	1	186(80.2)	3.07±0.29	-1.29	
	2 ≤	46(19.8)	3.13±0.34	(.197)	
Hours for volunteer activity per week (hrs)	<2 <sup>a</sup>	21(9.1)	2.96±0.29		
	2~3 <sup>b</sup>	121(52.2)	3.05±0.30	4.31	
	≥4 <sup>c</sup>	90(38.8)	3.15±0.30	(.015)	<i>a, b&lt;c</i>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61(69.4)	3.13±0.30	4.02	
	So so	71(30.6)	2.96±0.27	(<.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death attitudes, emotional intelligence, meaning in life (N=232)

Variables	Death Attitude	Emotional Intelligence	Meaning in Life
	r( $\rho$ )	r( $\rho$ )	r( $\rho$ )
Death Attitudes	1		
Emotional Intelligence	.36 ( $<.001$ )	1	
Meaning in Life	.45 ( $<.001$ )	.56 ( $<.001$ )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meaning in life (N=232)

Predictors	B	SE	$\beta$	t	$\rho$
Emotional intelligence	.158	.022	.41	7.20	$<.001$
Death attitudes	.235	.053	.25	4.44	$<.001$
Religion* d1	.107	.038	.17	2.82	.005
Perceived health status† d1	.072	.034	.11	2.09	.038
			Adj R <sup>2</sup> =.410	F=15.59	$p<.001$

\* Dummy variable(Protestant=d1, Catholic=d2, Buddhism=d3, Other and None=0)

† Dummy variable(Good=d1, So so=0)

1.603으로 10이상을 넘지 않았다. 오차의 자기상관은 Dubin-Watson 통계량이 2.251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600~3.534로 2에 가까워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 확인과 모형의 적합성도 만족하였다( $F=15.59, p<.001$ ).

대상자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감성지능( $\beta=.41$ ), 죽음에 대한 태도( $\beta=.25$ ), 종교가 개신교인 경우( $\beta=.17$ ), 지각된 건강상태( $\beta=.11$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생의 의미에 대하여 4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4).

## 논 의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감성지능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생의 의미 발견과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호스피스 완화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08±0.30점으로,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죽음교육에 참여한 40대에서 70대의 2.92점(Kang, et al., 2010), 병원 간호사의 2.96점(Seo, 2011), 대학병원 간호사의 2.83점(Youn & Ha, 2013) 보다 높게 나타났고, 암 환자의 3.29점(Jang, et al., 2014)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호스피스 돌봄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달리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생의 의미를 충분히 숙고할 여유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암 환자의 경우 완치에 대한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가진 유방암과 위암 및 갑상선암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희망이 매개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으나 대개 암을 진단받고 수술 혹은 항암을 비롯한 힘든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고통과 죽음을 직면할 기회가 그들에게 생의 의미를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하위 영역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삶의 허무, 삶의 재미, 자기 결정감, 죽음의 준비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삶의 의미 도구를 사용한 Kim 등(2007)의 연구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3.12점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비 참여자의 2.89점 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Yoon(2009)의 연구에서의 7점 만점에 사전 평균 4.65점(4점 만점으로 환산 시 2.66점), 사후 평균 4.84점(4점 만점으로 환산 시 2.77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죽음교육 혹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참여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생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생의 의미를 향상시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자아실현과 동시에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생의 의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생의 의미의 하위 영역에서는 창조적 가치 실현이 평균 3.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이 평균 2.9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ang 등(2010), Seo(2011), 그리고 Yoon(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창조적 가치 실현은 자신의 에너지를 세상에 내어줌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삶의 목표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05).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임종 및 죽음의 고통에 직면해 있는 호스피스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헌신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창조적 가치 실현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이 가장 낮다는 것은 주위환경에 부딪치는 위기의식과 거기에 자신을 개입시킬 수 있는 적극성의 저하를 의미한다(Seo, 2011).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적 한계에서 오는 무력감을 극복하고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의 의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감성지능, 죽음에 대한 태도, 종교, 지각된 건강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생의 의미를 41.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에 대하여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감성지능으로서 감성지능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과 생의 의미를 동시에 파악한 연구가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말기환자에게 편안한 간호와 정서적인 환경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감성역량이 요구되며(Xavier et al., 201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공감적 배려가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던 Claxton-Oldfield와 Banzen(2010)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동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게 하고(Goleman, 2005), 임종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고 다학제적 팀원 간의 팀워크를 증진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감성지능의 향상은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생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에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생의 의미에 대하여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죽음에 대한 태도로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생의 의미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과 죽음교육이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Lee, et al., 2013) 죽음불안을 감소시켰으며(Yoon, 2009),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이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죽음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Park, et al, 2012) 선행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호스피스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수용을 갖게 되고(Yoon, 2009),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봉사자 개인의 삶에 대한 참된 의미 발견은 물론 호스피스 환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돌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생의 의미에 대하여 세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종교로서 대상자가 개신교인일 경우 생의 의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 환자의 종교 및 종교의 중요성에 따라 생의 의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Jang 등(2014)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하지만 Youn과 Ha(2013)의 연구에서 종교가 생의 의미에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지만 불교, 무교 및 기타의 경우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종교의 종류에 따른 결과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오히려 종교생활의 참여도 및 신앙의 성숙도가 생의 의미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의 의미의 개념적 모델에서 영적·종교적 활동이 생의 의미발견 및 축진의 자원이 되며(Noviana, Miyazaki, & Ishimaru, 2016), 죽음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종교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 질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Kang 등(2010)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종교적 혹은 영적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되찾아 생의 의미를 재구축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한 Noviana 등(20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호스피스 환자 및 그 가족이 임종에 이르는 고통과 죽음의 과정 중에서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에서는 종교적·영적활동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생의 의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지각된 건강상태로서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군이 생의 의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죽음교육 참여자들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생의 의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Kang 등(2010)의 연구결과와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난 Youn과 Ha(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암 환자의 인지된 암의 심각성이 생의 의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Jang 등(2014)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해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된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체·정신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를 주요 변수로 다루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종교가 개신교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할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영향 변인은 감성지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 발견과 자아실현의 계기가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성지능 향상과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성지능개발 혹은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동시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종교 및 지각된 건강상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 결과 감성지능, 죽음에 대한 태도, 종교 및 지각된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생의 의미에 대한 설명력은 40.0%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말기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중요한 구성원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감성지능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 정립과 감성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Chang, S. O., & Burbank, P. M. (2000). Meaning in life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2), 259-271.
- Choi, J. H. (2010). *Relationship between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Choi, S. O. (2014). Posttraumatic growth in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cancer.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17(1), 1-9.
- Choi, S. O., Kim, S. N., Shin, K. I., & Lee, J. J. (2005).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Scale II.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5), 931-942.
- Claxton-Oldfield, S., & Banzen, Y. (2010).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hospice palliative care volunteers: the "big five" and empathy. *America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Medicine*, 27(6), 407-412.
- Frankl, V. (1969).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 and application of logotherapy*. New American Library: New York.
- Goleman, D. (200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Jang, S. H., Lee, H. R., Yeu, H. N., & Choi, S. O. (2014). The effects of posttraumatic growth and meaning in life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cancer patients. *Asian Oncology Nursing*, 14(2), 100-108.
- Kang, K. A., Lee, K. S., Park, G. W., Kim, Y. H., Jang, M. J., & Lee, E. (2010). Death recognition, meaning in life and death attitude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death education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13(3), 169-180.
- Kim, M. S., Lee, C. S., & Kim, H. C. (2007). The effects of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on perceptions about hospice and the meaning of life.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7(2), 131-139.
- Kim, Y. H., & Kim, M. J. (2015). Occupational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hospice volunteer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18(2), 112-119.
- Kong, I. S. (2015). Current status of hospice/palliative system and development pla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Policy Brief*, 9(6), 7-19.
-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June). Future death rate in Korea. Retrieved June 1, 2016, from the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eb site: <http://kosis.kr>
- Lee, Y. E., Choi, E. J., Park, J. S. & Shin, S. H. (2013). Perception and knowledge of hospice care and attitude toward death held by medical professionals from the same regio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16(4), 242-252.
- Lee, Y. T. (2015). Necessity of hospice/palliative activ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Policy Brief*, 9(6), 5-6.
- Lim, S. H., & Roh, S. H. (2009). The effects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 of hospice volunteer the participation level of volunteer activities and durabi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 Welfare Studies*, 40(3), 125-148.
- Noviana, U., Miyazaki, M., & Ishimaru, M. (2016). Meaning in life: a conceptual model for disaster nursing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2(Supplement), 65-75.
- Park, S. C. (1992). A study on the death orientation of hospice volunte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1), 68-80.
- Park, Y. S., Lee, S. O., & Hong, S. A. (2012). A comparative study on death orientation and self-esteem between hospice volunteer experience and hospice volunteer non-experience of middle-ag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2), 35-44.
- Planalp, S., Trost, M. R. & Berry, P. H. (2011). Spiritual feast: meaningful conversation between hospice volunteers and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Medicine*, 28(7), 483-486.
- Research institute for hospice/palliative ca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6).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oul : Koonja Publishing.
- Seo, I. J. (2011). *Meaning of Life for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Pusan.
- Thorson, J. A., & Powell, F. C. (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5), 691-701.
- Wong, C. S. & Law, K. S.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 243-274.
- Yoon, M. O. (2009). Effects of a death preparing education program on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life in volunteer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12(4), 199-208.
- Youn, J. H., & Ha, J. Y. (2013). Nurses' Awareness of death and meaning of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4), 381-388.
- Xavier, S., Nunes, L., & Basto, M. L. (2014). Emotional competence of the nurs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ruct. *Pensar Enfermagem*, 18(2), 3-19.

# The Influences of Death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Hospice Volunteers' Perception of Life as meaningful

Yoo, Myung Sook<sup>1)</sup>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ttitudes about death on hospice volunteers' perception of life as meaningful. **Methods:** In this study, 232 hospice volunteers who were serving at 3 university hospitals and 7 general hospitals for 6 months or longer.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January 20 to February 15, 2016.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tests, one way ANOVA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th SPSS 21.0. **Results:** Hospice volunteers' perception of life as meaningfu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attitudes toward death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perception of meaning were emotional intelligence, attitudes toward death, relig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hese variables explained 41.0% of the variance in hospice volunteers' perception of life as meaningful.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hospice volunteers perceptions of life as meaningful can be changed positively by increas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positive attitudes about death.

**Key words :** Hospice Volunteers, Attitude to Death, Emotional Intelligence, Value of Lif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 Myung Sook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 Duryugongwon-ro 17-gil, Nam-gu, Daegu, Korea, 42472

Tel: 82-53-650-4824 Fax: 82-53-650-4392 Email: sryoo7@cu.ac.kr